

行을 위한 道는 존재이다 - 老子

인간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이기보다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이다. -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그대의 존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대의 삶을 덜 표출할수록, 그만큼 그대는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그만큼 그대의 소외된 삶은 더 커진다.

- 카를 마르크스

서론

위대한 약속, 이행되지 않은 약속과 새로운 선택

한 그릇된 환상의 종말

- 행복과 최대치의 만족은 모든 욕망의 무제한적 충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복지상태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 우리가 자기 삶을 지배하는 독자적 주인이 되리라는 꿈은 우리 모두가 관료주의 체제라는 기계의 톱니바퀴로 물려들었음을 인식함과 더불어 깨져버렸다.
- 우리의 사고, 감정, 취미는 매스 미디어를 지배하는 산업 및 정부기구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 기술적 진보는 생태학적 위험과 핵전쟁의 위험을 필연적으로 수반해 왔고, 어쩌면 모든 생명체의 종말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위대한 약속은 왜 실현될 수 없었는가?

- 소유의 추구는 계급간의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계급을 타파함으로써 계급투쟁에 종식을 고하겠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은 엄연한 허구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체제 역시 근본적으로는 삶의 목표로 무제한의 소비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한 계급은 형성되기 마련이고 따라거 계급투쟁도, 세계적 시각에서 보면 국제적 전쟁도 불가피한 것이다. 소유욕과 평화는 서로 배척관계에 있다.

인간의 변화를 위한 경제적 필연성

- 자연에 대한 새로운 입장과 새로운 윤리라는 의미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들어서야만 인간의 근본 가치와 그가 취하는 입장도 바뀔 것이다.
-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의 육체적 생존이 인간정신의 근본적 변화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의 변화도 과감한 경제적, 사회적 변혁이 일어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파국에 대비할 다른 선택이 있는가?

- 모든 본능가운데 가장 강한 본능인 자기보존본능이 아예 작동을 멈춘 것 같은 이런 사태는 정치가들이 번잡스러운 제스처를 통해서 재난을 모면할 수 있는 무슨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듯이 호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통치자도 피통치자고 마치 대책을 알고 그것을 진척시키는 듯이 호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양심과 아울러 생존에의 소망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 인간이 취하느 치명적인 수동성을 설명해주는 또 한 가지 요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독점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나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또는 “미소 띤 얼굴을 한” 관료주의적 파시즘에 맞서서 그것을 대치할 다른 선택이 없다고 여기는 견해다.

제 1 부 소유와 존재의 차이에 대한 이해

1 일반적 고찰

소유와 존재의 차이의 중요성

- 마르크스는 사치야말로 빈곤과 마찬가지로 큰 악덕이며, 우리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소유와 존재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체험의 두 가지 형태로서, 극 각 양식의 강도가 개인의 성격 및 여러 유형의 사회적 성격의 차이를 결정한다.

문학에 나타난 예

- 소유지향은 돈, 명예, 권력에의 탐욕이 삶의 지배적인 주제가 되어버린 서구 산업 사회의 인간들의 특성이다.

언어관습의 변화

뒤 마레와 마르크스의 고찰

오늘날의 언어관용

- 소유적 실존양식에서 세계에 대한 나의 관계는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관계,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관계다.
- 존재적 실존양식에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존재를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소유의 반대개념이다. 이 형태는 생동적이며 세계와 실체적 관계에 있다. 또 다른 형태는 겉보기의 반대개념이다. 있다(be, sein)라는 말의 어원에서 서술되듯이 미혹적 가상

과는 반대되는, 한 인격에 내재한 참실재이다.

존재에 대한 철학적 개념들

- 생성과정과 활동, 운동이 존재의 구성요소이다.
- 존재란 시간을 초월하여 불변 및 항존하는 실체이며 따라서 생성과정의 반대라는 견해는 하나의 사고(개념)는 궁극적으로 실재라는 관념론적 사상을 토대로 할 때에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 살아 있는 인간의 현실, 그의 사랑과 미움, 고뇌로부터 본다면 동시에 생성과정과 변화를 겪지 않는 존재란 하나도 없다. 생명이 있는 유기체는 생성을 겪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한에서만 실존할 수 있다. 성장과 변화는 삶의 과정에 내재한 특성인 것이다.

소유와 소비

- 소비는 소유의 한 형태다. 아마도 현대 “잉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형태일 것이다. 소비는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써버린 것은 빼앗길 염려가 없으므로 일단 불안을 감소시켜준다. 그런 한편 점점 더 많은 소비를 조장한다. 왜냐하면 일단 써버린 것은 곧 충족감을 주기를 중단해버리기 때문이다. 현대 소비자는 나 = 내가 가진 것 = 내가 소비하는 것 이라는 등식에서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는지도 모른다.

2 일상적 경험에서의 소유와 존재

학습

대화

권위행사

- 오늘날 현대민주국가에서는 능력과 권위사이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PR전문가들에 의해서 설계되고 조작된 이미지를 근거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체제에서 권위적 인물의 행동을 판단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있다.
- 무릇 사고능력을 지닌 모든 인간은 선전의 여러방법드, 비판적 판단력을 죽이고 분별력을 마비시켜서 결국 상투적 말투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믿게 되는 선전의 허구가 그들을 현실에서 눈멀게 하는 것이다.

지식

- 얇은 미망을 깨뜨리는 것,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비롯된다. 얇은 표면을 뿌리까지 뚫고 들어가서, 근원에 이르러 적나라한 현실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진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진실 향해 가급적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각성자 석가모니는 사람들에게 “깨어나라, 물질의 소유가 행복을 가져온다는 미망

에서 벗어나라”고 설법한다.

- 존재양식의 지고의 목표는 보다 깊이 아는 것인 반면, 소유양식의 지고의 목표는 보다 많이 아는 것이다.

신앙

- 소유양식으로서의 신앙은 스스로는 모색할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확신을 원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절름발이 인간들을 위한 목발이 된다.
- 존재양식으로서의 신앙은 일차적으로 특정한 이념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물론 그럴수도 있지만), 내젓이 성향, 일종의 마음가짐이다.
- 구약성서의 여호와와는 무엇보다 우상을,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여러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신의 속성은 인간의 입에 감히 올릴 수조차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으로써 우상화의 위험을 추방하고자 한다. 에크하르트 수사의 말을 빌리자면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영원히 탄생되는 과정”이다.
- 확신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실증될 수는 없지만 주관적 경험을 증거로 하여 나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의 존재에 대한 신념이다.(신앙을 의미하는 헤브루어 emuna는 확신을 의미하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men이란 ‘확실히’라는 뜻이다.)

사랑

- 소유양식으로 체험되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고 가두며 지배함을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생명감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목을 조여서 마비시키고 질식시켜서 죽이는 행위이다.

3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그리고 에크하르트 수사의 저술에 나타난 소유와 존재

구약성서

- 구약성서의 주요 주제의 하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라, 모든 속박으로부터 너 자신을 풀어라, 존재하라!”이다.
- 안식일에는 모두가 마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듯,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목적도 추구하지않는 듯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본질적인 힘을 쓰기 위해 사는 것 - 오로지 기도하고 연구하며,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사랑하는 것이다.
- 헤브루 예언자들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비전을 혁신했다. 새로운 황야에 대한 이들의 예언은 유대인 신앙은 물론 결국 전 인류의 신앙을 위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황야란 다름 아니라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거나 멸절시키지 않고서 평화와 풍요를 약속하는 메시아적 비전에 바탕을 둔 땅인 것이다.
- 이들 예언자들의 참후에는 학식 있는 랍비들이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있다. 그는 1세기의 갈릴리 랍비로서 유대인 항쟁의 전망이 없음을 인식하고 사원파괴(기원후 70년)이전에 로마 총독에게서 야브네(Jabne)의

- 학교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이 사건은 풍요로운 유대인 전통의 발단인 동시에, 유대인이 소유했던 모든 것 - 나라, 사원, 성직자 체제와 군대의 관료제도, 제사와 의식 - 을 상실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들(집단으로서)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존재하는 것의 이상, 즉 깨닫고 배우며 생각하는 것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이었다.

신약성서

-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중심 전제는 모름지기 인간은 모든 탐욕과 소유욕을 떨쳐버리고 자신을 소유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야 한다는 요청이다. 자아를 버리고 이웃을 이해하며 이웃의 행복에 전적으로 자기를 바치라는 원리의 확대다.
- 예수와 마귀는 대립적인 두 원칙을 대표한다. 마귀는 물질적 소비와 자연 및 인간을 지배하는 힘의 대표자이다. 반면 예수는 존재의 구현이며, 소유하지 않는 것이 존재양식의 전제라는 이념의 구현이다.

소유에 관한 에크하르트에의 개념

- 에크하르트는 내적 빈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가난한 사람이다.
-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욕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이것이 비집착(초연함)이라는 에크하르트적 개념의 실체다.
- 에크하르트는 어떤 특정한 사상과 사유의 과정을 구별한다. 또한 신을 사랑하는 것 보다는 신을 인식하는 편이 더 낫다고 강조한다. “사랑은 욕구와 욕망을 일으킨다. 반면에 인식은 그 어떤 생각도 첨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욕구를 떨쳐내고 스스로 그것에서 떨어져나와서 신앞으로 달려가 알몸으로 신과 접촉하고 자신의 존재안에 신을 끌어안는 것이다.
- “인간이여, 그대의 지식을 비워버려라”는 그의 요구는 알고 있는 것을 잊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라는 의미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지식을 자기를 확인시켜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기능적인 소유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 존재양식에서의 지식은 파고드는 사유행위 그 자체다. - 확신을 획득하고자 멈추어 서려는 욕망을 결코 느끼지 않는 그런 사유행위다.
- 마음의 가난이란 이런 것이다. 즉 인간이 신으로부터, 그리고 일체의 신의 작업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신 스스로 그 마음안에서 활동하고자 뜻하시어 바로 신 자신의 활동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자신이 지닌 사물과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우리가 소유하고 행하는 것에 - 심지어는 신에게조차 묶이고 속박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 에크하르트에게 참된 결실의 조건으로서의 자유는 바로 자아를 버리는 것이다.
- 그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목표는 아집과 아욕, 다시말하면 소유적 실존양식에서 벗어나 완전한 존재에 도달하는 것이다.

- 우리가 모든 사물과 사상들에 집착할 때, 그리하여 그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족쇄가 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자기실현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존재에 관한 에크하르트의 개념

-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이기 보다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이다.” 무엇을 많이 행하느냐보다는 선하게 존재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를 받치고 있는 근본이다.
- 존재는 삶이며 활동이며, 탄생이고 재생이고,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것이며, 생산활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는 소유, 아집, 아욕의 반대개념이다.
- 소유적 실존양식을 깨고 나오는 것이 모든 참활동의 전제이다. 에크하르트의 윤리적 체계에서는 내면적 생산활동이 지고의 미덕이며, 그 전제는 일체의 아집과 탐욕을 극복하는 것이다.

제 2 부 두 실존양식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분석

4 소유적 실존양식

이윤추구의 사회 - 소유적 실존양식의 바탕

- 오늘날 상당수의 집단과 개인이 소유에서 존재로의 태도변화를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그들은 다수의 소유지향 추세를 능가하는 새로운 추세를 대표한다. 오늘날 만연된 소유적 태도를 존재적 태도로 전향하게끔 하는 보편적 변화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요소로 - 여성들에 대한 가부장적 지배의 붕괴와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지배의 붕괴 - 등은 이 희망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정치적 혁명-러시아 혁명-이 실패로 판정되고 있는 한편에서 (중국의 혁명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아직 이르지만), 금세기의 성공적 혁명이라면 비록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여성과 자식들의 혁명, 그리고 성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혁명들이 요청하는 바는 이미 다수의 의식 속에 받아들여졌고, 낡은 이데올로기들은 하루가 다르게 가소로운 것이 되고 있다.

소유의 본질

- 소유적 실존양식은 주체와 객체 사이의 살아 있는 관계나 생산적 과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체와 객체를 사물로 만든다. 그 관계는 죽은 것이며, 살아 있는 관계가 아니다.

-

소유 - 힘 - 저항

- 교회가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신성함을 배려해서가 아니라(이런 배려라면 사형제도의 거부나 반전운동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종족의 번식에 기여하지 않는 한 일체의 성행위를 비방하는 기본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 성적 強拍과 倒錯이 자유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자유는 放任이나 恣意가 아님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 소유적 실존양식, 재산과 이윤을 지향하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권력에의 욕구, 말하자면 권력에의 의존성을 낳는다. 소유적 존재양식의 인간은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우월하다는 데에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이식에서, 그리고 결국 정복하고 약탈하고 죽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그러나 존재적 실존양식에서 행복은 사랑하고 나누며 베푸는 것에 놓여 있다.

소유적 실존양식을 부추기는 그밖의 요소들

- 언어는 소유지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인자다. 보통명사나 물질명사는 우리에게 암시를 곁어서 그것이 고정된 실체라고 말하게 말한다.
-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는 또다른 근거가 있다. 즉 생물학적으로 조건지어진 살고자 하는 욕망이다. 행복하든 불행하든 간에 우리의 욕심은 불멸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몰아간다.
- 우리는 불멸에 대한 믿음을 보증해줄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미라도 안장된 파라오의 믿음, 수렵시대의 사후에 대한 종교적 환상,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등등. 18세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역사와 미래”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을 대신하게 되었다.
- 그러나 불멸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산소유이다. 그리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필시 소유지향성은 그만큼 강렬할 수 밖에 없는 듯하다.

소유적 실존양식과 항문애적 특성

- 프로이드는 어린이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이른바 항문기를 거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고찰했다. 항문애적 특성을 성숙 이전의 단계로 보는 프로이드적 견해는 사실상 19세기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 소유지향의 지배적 특성은 완전한 성숙기 이전에 나타나며, 그 특성이 이후의 삶에도 계속 두드러지면 그것은 병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프로이트의 견해다.

금욕주의와 평등

- 중요한 것은 지나친 사치와 빈곤을 근절시키는 일이다. 물질적 자산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양적으로 똑같이 분배했다고 해서 그것이 평등을 의미할 수는 없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개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른바 “미숙한 공산주의”를 거론함으로써 이와 같은 측면을 지적했다. 이런 종류의 공산주의는 “시기심의 성취이며, 최소한의 소유라는 상상적 가설에 바탕을 둔 평준화의 완성에 불과한 것이다.

기능적 소유

-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특정한 사물을 소유하고 보존하며, 육성하고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육체와 의식주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채우기에 필요한 도구들이 이것에 해당한다. 이런 종류의 기능적 소유는 그것이 인간의 실존에 뿌리박고 있으므로 실존적 소유라고 칭할 수도 있다. 그것은 생존에 기여하는, 합리적으로 조종되는 충동이며- 우리가 지금껏 다루어온 성격으로 규정된 소유와는 반대의

것이다.

- 실존적(기능적)소유는 존재와의 갈등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성격으로 규정된 소유는 존재와 충돌한다.

5 존재적 실존양식

- 소유는 사물과 관계하며, 사물이란 구체적이며 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존재는 체험과 관계하며, 체험이란 원칙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이다.

능동성

- 존재적 실존양식의 전제조건은 독립과 자유 그리고 비판적 이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 가장 본질적 특성은 능동성이다. 능동성이란 인간의 힘을 생산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의 내면적 활동상태를 뜻한다.
- 존재적 실존양식은 우리가 소유적 실존양식 내지는 비존재적 실존양식을 제거하는데 비례해서(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유에 매달림으로써 그것에 "안주하고" 자아와 가진 것에 집착함으로써 안정을 추구하고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감소시키는 정도에 따라서)관철될 수 있다.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중심주의와 아집을 버려야 하며, 신비주의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텅 비워야" 한다.

능동성과 수동성

위대한 사상가들이 보는 능동성과 수동성

실재로서의 존재

배풀고, 나누고, 희생하려는 의지

6 소유와 존재의 그밖의 측면

안정 - 불안정

- 영웅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땅, 가족, 재산-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물론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떠날 용기를 지닌 인간이다.
- 소유는 사용에 따라서 감소하는 반면, 존재는 실천을 통해서 증대한다. 베푸는 것은 상실되지 않으며, 반대로 붙잡고 있는 것은 잃기 마련이다. 존재적 실존양식에서 나의 안정에 대한 유일한 위협은 나 자신의 내부에 있다. 반면 상실의 위험은 소유에 항상 내재한다.

연대감 - 적대감

- 소유적 실존양식과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탐욕이 필연적으로 인간간에 적대감과 투쟁을 초래하는 점은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간에도 해당된다.

기쁨 - 쾌락

- 쾌락과 말초적 흥분은 절정을 넘어서면 비애의 감정을 남긴다. 흥분은 맛보았지만, 그릇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적 힘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존재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는 종교 및 철학 체계에서는 "기쁨"이 중심적인 역할

을 한다.

- 기독교에서는 "복음" - 기쁜 소식 - 이라는 몇이부터가 즐거움과 기쁨이 지닌 중심적 의미를 시사한다. 신약성서에 의하면 기쁨은 소유를 포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요, 슬픔은 재물에 매달리는 자가 치러야할 몫이다.

죄와 용서

- 불복종은 곧 죄라는 의식이 고취될 필요가 있었다. 국가와 교회는 힘을 모아 그 일을 행했다. 국가는 불복종을 죄로 공표하는 이데올로기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필요로 했고 - 종교는 국가에 의해서 복종의 미덕으로 훈련된 신자들을 필요로 했다.
- 신학적 및 세속적 용어로 "죄"라는 말은 권위적 구조와 결부된 개념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인간의 중심이 그 자신 안에 있지 않고 그가 복종하는 권위에 있다는 점에서 소유적 실존양식과 부합한다.
- 우리 사회의 권위적 구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도 소유적 실존양식 속에서 살게 된다는 점이다.
- 성서의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는 권위주의적인 요소와 해방적 요소를 모두 함축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 어느 식으로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볼 때, 죄를 불복종으로 보는 견해와 소외로 보는 견해는 완전히 대립되는 견해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 삶의 긍정

-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석가모니와 예수, 에크하르트 수사가 가르쳐준 길로서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것, 삶을 소유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 "자유로운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만 생각한다. 그의 지혜로움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닌 삶에대한 숙고이다"라고 스피노자는 말한다.

여기, 지금 - 과거, 미래

제 3 부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사회

7 종교, 성격, 그리고 사회

사회적 성격의 토대

- 사회적 성격과 사회구조의 관계는 두 요소 모두 도저히 끝나지 않는 과정이므로 결코 靜的인 관계가 아니다.
- 순전한 정신적 변혁은 항상 사적영역이나 소규모 집단에 한정되어왔으며, 또는 제 아무리 훌륭한 정신적 가치들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전혀 다른 가치들이 실천되는 마당에서는 전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성격과 "종교적" 욕구

- 우리의 종교적 태도는 우리의 성격구조의 측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헌신의 대상이 우리의 행동을 낳는 동기가 되기 때

문이다.

- 우리가 헌신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우리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결집하기 위해, 온갖 의혹과 불안을 수반하는 고립된 실존을 초월하기 위해, 그리고 삶에 의미를 주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이다.

서구세계는 기독교적인가?

- 유럽의 기독교화는 두 차례의 단계를 거쳤다. 처음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치하의 로마 제국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이고, 두 번째로는 8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사도" 보니파티우스에 의해서 북유럽 이교도들이 개종하고, 이어서 그밖의 나라들로 개종했을 때이다. 그렇다면 유럽이 진실로 기독교화한 적이있는가?
- 보다 엄밀히 분석해보면 유럽의 기독교 개종은 전반적으로 표면에 머물렀음이 드러난다. 기껏해야 12세기와 16세기 사이의 한시적 개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때를 전후한 다른 여러 세기 동안은 그 심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교회에 대한 전면적인 굴종이 수반된 이데올로기로의 전향이었으며 마음의 변화, 즉 성격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개종은 아니었다. 물론 예외적으로 많은 참된 기독교 운동이 있기는 했다.
- 유럽에서 기독교화의 짧은 시기는 막을 내렸고, 유럽은 그 본래의 이교도 정신으로 환원했다.
- 기독교의 모든 분파는 한 가지 믿음만은 공유한다. 즉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야말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던진 구세주라는 믿음이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영웅이며, 권력 없는 영웅이다. 권세를 부리지도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은 영웅이었다. 그는 존재의 영웅, 베풀고 나누는 영웅이었다.
-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역사는 기독교에의 귀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과 허욕과 탐욕의 역사이다. 서구의 역사가 정복, 착취, 폭력, 그리고 제압의 역사라는 사실은 사례를 열거할 필요도 없다.
- 사랑(그리스도)에 대한 명목상의 믿음이 실제 사랑의 부재상태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적인 죄책감 및 고통을 상당 부문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시대의 종교

시장적 성격과 인공두뇌적 종교

휴머니즘의 저항

-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개성으로서 사고하는 데에는 무력해지고, 모든 면에서 오로지 소속된 집단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내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8 인간의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새로운 인간의 본질적 특성

- 실천과 동떨어진 통찰은 아무 실효가 없는 법이다.

새로운 인간

9 새로운 사회의 특성

새로운 인간과학

- 경제적 파국의 위험을 피하려면, 무제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버리고 선택적 성장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 합당한 노동조건과 아울러 노동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물질적 이익이 결정요인이 아니고, 다른 정신적 충족이 효율적 동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 과학적 진보는 촉진되어, 동시에 그것이 실체에 적용될 때 인류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기술적 유토피아-예를 들면 비행-는 예의 새로운 과학에 힘입어서 현실화되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메시아 시대의 인간적 유토피아-한마음이 된 새로운 인류가 강박, 전쟁, 계급투쟁에서 벗어나서 연대감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가 지금껏 기술적 유토피아를 위해서 쏟았던 것에 버금가는 에너지, 지성, 열광을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쏟을 때에만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와 정치를 인간의 발전에 종속시키려면, 새로운 사회의 모델을 소외되지 않은, 존재지향적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인간이 그 존엄을 잃을 지경의 빈곤 속에 사는 - 이것은 여전히 인류 대다수의 문제이다.-상황에 처해져서도 안 될뿐더러, 끊임없는 생산증대와 아울러 소비증대를 요구하는 자본주의적 경제법칙에 떠밀려서, 오늘날 여러 산업국가의 부유 소비계층의 경우처럼 한낱 소비인(Homo consumens)으로 전락한 실존을 영위하도록 운명지어져서도 안 된다는 의미다. 인간이 자유로워지려면, 다시말하면 병적 과소비로 산업을 추진시키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려면, 경제제체제의 근본적 변혁이 있어야 한다. 병든 인간을 제물로 하고서 그 건강을 부지하는 오늘날의 경제적 상화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의 과제는 건전한 인간을 위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에 중요한 첫 걸음은 "건전하고 이성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생산의 수행이다.
- 건전한 소비를 위한 대규모 계몽운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분별 있는 소비형태를 끊임없이 홍보함으로써 소비태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비자의 욕망은 생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특히 세뇌적 광고는 소비욕을 증대시킨다. 기업은 비록 기업에는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는 유익할 듯한 제품생산을 포기함으로써 인간의 취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건전하고 분별있는 소비는 전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성장의 관점에서 생산을 결정하는 기업 경영인과 주주의 권리를 과감하게 제한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 위와 같은 변혁은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법률제정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다. 이미 공공복지를 위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많은 법규들이 있다. 문제는 생산방향을 결정하는 힘이지, 자본의 소유 자체가 아니다. 우선 광고의 암시적 영향력만 제거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욕구가 생산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현존하는

기업들은 이 새로운 욕구에 맞추어서 생산시설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 시민들이 소비자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는 전투적 소비연맹을 조직하여 "불매동맹"을 무기로 사용하는 일이다.
- 소비자 불매운동의 커다란 이점은 그 어떤 정부의 개입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러나 대기업들이 오늘날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훌륭히 조직된 소비자 운동이라고 해도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세뇌에 의한 사고의 통제) 정부와 국민을 지배하고 있는 이 다국적 기업의 힘을 꺾지 못하는 한, 우리가 그나마 보유한 민주주의 잔재마저 필연적으로 기술관료주의적 파시즘에, 배만 채우고 두뇌는 작동하지 않는 로봇들의 사회-우리가 "공산주의"라는 이름하에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런 형태의 사회-에 종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존재지향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경제적 및 정치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산업적 및 정치적 참여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한에서만, 우리는 소유의 실존양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투철한 휴머니스트들의 공통된 확신이다.
- 정치적 삶에서 능동적인 공동결정은 정치와 경제의 최대한의 분권화를 요구한다.
-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참여는 관료주의적 경영이 휴머니즘적 경영으로 대체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관료주의자들의 행동은 통계적 자료를 기초로한 경직된 규칙에 따른 것일 뿐, 그들 앞에 서 있는 살아 있는 인간에 대한 자발적 반응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확신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은 규칙에 대한 충성심이 아닌, 인간성의 명령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다.
- 상업광고와 정치선전에서 모든 세뇌적 방법이 금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면술 같은 선전방법에 조작당하여 온전한 정신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끊임없이 불어나는 이와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해서 상품광고와 정치가들의 선전에서 일체의 최면술적 형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부강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격차가 메워져야 한다.
-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해악은 연간수입의 최소치를 보장해줌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 여성은 가부장적 지배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 정부, 정치가, 시민들에게 모든 실제적인 문제에서 지식을 조달하고 조언을 주는 과제를 수행할 최고 문화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 시민이 접하는 정보는 기껏해야 피상적인 기성품이며, 사건의 진상을 보다 깊이 통찰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볼 가능성은 거의 공급되지 않는다. 뉴스의 판매도 일종의 장사인 한, 신문이나 잡지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선호하고, 아울러 광고주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는 기사를 실는 것을 우리로서는 막을 길이 없다.
- 과학적 기본 연구는 산업 및 군사상의 적용문제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은 원자의 무장해제이다.